

**김종인**  
더민주 대표

“정부가 너무나 옹졸하게 생각...합창만 허용한다고 한 것은 아집”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사회통합 위해 제창돼야. (제창 불허는)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결정”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법제화, 5·18 폄훼자 처벌법도 제정하겠다”

**문재인**  
더민주 전대표

“합창은 되고 제창은 안되고,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알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를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하고 분노해야 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5·18 당시에 불렀던 우리 모두의 노래. 정부가 갈등을 일으킬 주제 아니다”

## “제삿상 걷어찬 정부의 퇴행적 결정에 참담”

### 5·18기념식 참석 정치인의 말말말

아권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식이 열린 18일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 무산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내년 행사부터는 반드시 제창이 이뤄지도록 관철하겠다고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대해 “정부가 너무나 옹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합창만 허용한다고 한 것은 아집에 사로잡힌 결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논란이 있는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 지정곡이나 아니냐는 것은 또 몰라도...”라며 “합창은 되고 제창은 안되고, 그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제창은) 논란의 주제가 아니다. 5·18 당시에 불렀던 노래는 우리 모두의 노래이지 정부가 갈등을 일으킬 주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공연한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념식에 앞서 광주를 다녀갔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오전 서울광장에서 열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제36주년 서울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불의에 저항해 동소회를 만들자는 광주정신을 위해 싸워 나가야 할 때”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를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해야 한다. 분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사회통합을 위해 제창돼야 한다”며 제창 불허 결정에 대해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기념식이 이렇게 무성하고 영령을 위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데 대해 한없는 무력감을 느낀다”며 “보훈처장의 작태에 모든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으며, 보훈처를 콘트롤할 수 없다는 정부에 대해 한없는 분노를 느끼지만, 20대 국회에선 이런 일을 반드시 고쳐야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제삿상 걸어서 걷어찬 정부의 참담하고 퇴행적인 결정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전한다”며 “합창이나 제창이나 여부는 오히려 부차적이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의 비뚤어진 역사인식

**김종인 “정부가 너무 옹졸”**  
**박지원 “한없는 무력감 느껴”**  
**야권 제창 법제화 방안 검토**

과 민주주의관이 문제”라며 기념곡 지정 및 제창 허용을 거듭 촉구했다.

각 당 대변인들도 정부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가 방침 및 박근혜 대통령의 기념식 불참에 대해 ‘국론분열’,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일제히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우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지정곡으로 채택하고 공식 기념행사에서 제창하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이미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지정곡으로 정해 제창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아예 법으로 정해서 정부의 실천을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권은 ‘5·18 특별법’을 개정, 이 법에 정부로 하여금 5·18 기념행사 개최시 5·18 유관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곡으로 채택해 기념행사 식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아권은 오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더라도 수적 인 우위를 내세워 입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아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방침을 고수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20대 국회에서 제출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자진 사퇴 또는 경질을 압박하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저녁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남독할만한 후속 조치가 없으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 5·18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반드시 제창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석고대죄 하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 관련 유족회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쫓겨날 줄 알았나...1분 버티다 물러난 박승춘

**“정부 기념식...대단히 유감”**  
**오월 3단체 등 경질 촉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18일 오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장을 쫓겨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 물의를 빚었다.

박 보훈처장은 항의하는 유족에 떠밀려 행사장을 벗어나면서도 기념식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데 대해 ‘책임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의 얼굴에선 유족을 위로하고 정부 기념식을 주관해야 할 책임자로서

기념식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데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 보훈처장은 이날 유족을 비롯한 참석자들의 반발을 예상한 듯 기념식 시작을 2분여 남겨둔 오전 9시58분경 행사장에 들어섰다. 맨 앞줄 중앙에 마련된 의자에 다가서자마자 흰색 소복과 검은색 양복을 입은 유족들의 항의가 시작됐다. “5·18을 상징하는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왜 못 부르게 하느냐, 당장 나가라”는 외침이 계속됐다.

1분여 버티고 그는 행사장을 벗어나면서 “저를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것은 대단히 유

감이다. 당사자(5·18피해자)의 기념식이 아니라 정부 기념식이다”라고 말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기념곡 지정 불가 방침 결정에 대해서도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결정권이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훈처에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밝혔듯이 보훈단체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강력하게 반대한다. 우리 국가보훈처는 그들이 반대하는 노래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 참석자 전원이 일어나 의미를 되새기며 부르는 제창

행식으로 부를 경우 보훈단체 측이 행사 참석을 거부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책임을 벗어남과 동시에 유족들의 줄기찬 요구를 외면한 것이다.

이와 관련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5월 3단체는 기념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보훈처장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제창 불허로 또다시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상처를 입었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논란의 장본인인 국가보훈처장을 즉시 경질하고 5·18에 대한 각종 왜곡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



##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법무법인 맥 설립인사

그동안 각자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뜻을 모아 ‘법무법인 맥(脈)’의 이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반 소송업무(민사/형사/가사/행정 등) 뿐만 아니라 기업법률 자문분야 등에서도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출발에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출발을 축하하는 조출한 소연을 마련하였으니 참석 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시 : 2016. 5. 20.(금) 16:30
- 장소 : 광주 동명로 106 법무법인 맥 빌딩 1층

대표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문방진 노 로 권오성

### 구성원 변호사

- 조재건**  
사법연수원 24기  
전 순천지법 부장판사
- 서정암**  
사법연수원 26기  
전 광주고법 판사
- 문방진**  
사법연수원 26기  
전 장흥지방법장
- 노 로**  
사법연수원 29기  
전 광주지법 검사
- 권오성**  
사법연수원 33기  
전 광주지법 검사

### 소속 변호사

- 윤철호(사시 45회) 박충배(변시 1회)
- 김경욱(변시 1회) 민양이(변시 3회)
- 정은혜(변시 3회) 류노엘(변시 4회)
- 정찬욱(변시 4회)